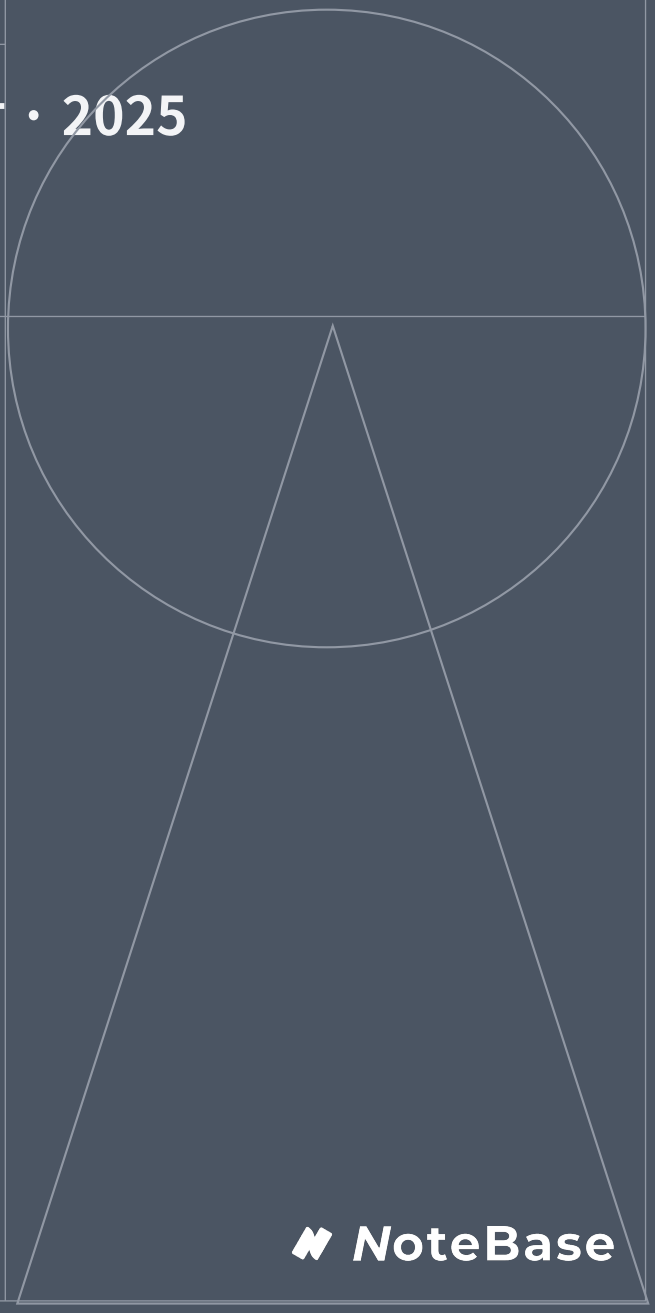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5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5

문 1. (주)한국이 원가 ₩60,000의 재고자산을 ₩100,000에 외상판매하였을 경우, 옳은 분개는? (단,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다)

① (차): 현금 ₩100,000, (대): 매출 ₩100,000

② (차): 매출원가 ₩60,000, (대): 매출 ₩60,000

③ (차): 매출채권 ₩100,000, (대): 매출 ₩100,000

④ (차): 매출채권 ₩100,000, (대): 매출 ₩100,000
(차): 매출원가 ₩60,000, (대): 재고자산 ₩6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외상판매이므로 판매대금은 현금이 아닌 **매출채권**으로 기록한다. **계속기록법**에서는 판매 시 매출 ₩100,000과 함께 재고자산 ₩60,000의 감소 및 매출원가를 기록한다.

공통 해설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입출고 때마다 재고 수량과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을 외상판매하면 **판매대금에 대한 기록과 판매한 재고의 원가에 대한 기록**을 함께 해야 한다. 판매가격 ₩100,000은 매출액이고, 취득원가 ₩60,000은 판매한 재고의 원가이므로 두 금액을 구분한다.

외상판매에서는 돈을 나중에 받을 권리인 매출채권이 증가한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므로 '(차) 매출채권 ₩100,000 / (대) 매출 ₩100,000'으로 분개한다. 아직 현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현금의 증가는 기록하지 않는다.

동시에 판매한 재고의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을 감소시킨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므로 '(차) 매출원가 ₩60,000 / (대) 재고자산 ₩60,000'으로 분개한다. 이때 대변은 매출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며, 매출채권과 매출만 기록하면 계속기록법에서 필요한 원가와 재고 감소의 기록이 빠진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은 20×1년 초에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0,000,000으로 인식하였다. 20×1년 말 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25,000,000일 경우, 20×1년 말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당기이익 ₩5,000,000이 반영된다.

② 기타포괄이익 ₩5,000,000이 반영된다.

③ 금융자산의 기말 장부가액은 변하지 않는다.

④ 금융자산은 ₩20,000,000으로 유지되지만, 금융부채가 증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주식의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가 20,000,000원에서 25,000,000원으로 올랐으므로 기타포괄이익 5,000,000원이 발생한다.

공통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주식은 **기말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그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에 반영되는 손익이다.

이 주식의 기말 공정가치는 25,000,000원이므로 최초 인식액 20,000,000원과의 차액인 25,000,000 − 20,000,000 = 5,000,000원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차변에는 금융자산 5,000,000원, 대변에는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5,000,000원을 기록한다.

이 평가조정으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25,000,000원이 되고, 기타포괄이익 5,000,000원이 반영된다. 평가이익은 당기이익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자산을 취득 당시 금액으로 유지하거나 금융부채를 증가시키는 처리도 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현금 ₩100,000을 분실하였다.

② 은행으로부터 현금 ₩1,000,000을 차입하였다.

③ 화재가 발생하여 ₩300,000의 건물이 전부 소멸하였다.

④ 거래처와 2년간 ₩2,000,000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앞으로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아직 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어도 계약 체결 자체만으로 매출을 기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회계상 거래란 기업의 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을 일으키고 그 변동을 화폐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매매처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뿐 아니라 분실이나 화재 같은 우발적인 사건도 포함한다. 아래 O/X는 각 사건이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다.

① O: 현금 100,000원을 분실하면 자산인 현금이 100,000원 감소하고, 분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 **의도하지 않은 분실도** 자산과 자본에 측정 가능한 변동을 일으키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② O: 은행에서 현금 1,000,000원을 차입하면 자산인 현금과 부채인 차입금이 각각 1,000,000원 증가한다. 갚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므로 수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자본도 변하지 않는다. **자본이 변하지 않아도** 자산과 부채가 변하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③ O: 화재로 300,000원의 건물이 전부 소멸하면 자산인 건물이 300,000원 감소하고, 화재손실이 발생하여 자본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없어도 **건물이라는 자산이 소멸**했으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④ X: 거래처에 2년간 2,000,000원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만 체결한 단계에서는 아직 제품 인도나 대금 수수에 따른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금액을 곧바로 매출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이후 **제품을 인도하거나 선수금을 받는 등** 회계상 변동이 발생하면 그 내용에 맞게 기록한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원가모형 적용,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감가상각, 잔존가치 ₩10,000,000)를 ₩100,000,000에 취득하고 즉시 사용하고 있다. 20×3년 말 (주)한국이 인식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① ₩70,000,000

② ₩73,000,000

③ ₩82,000,000

④ ₩100,0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9,000,000원을 3년간 누적하면 27,000,000원이므로, 20×3년 말 장부가액은 73,000,000원이다.

계산 과정

연간 감가상각비: 정액법에서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다. 취득원가 100,000,000원에서 잔존가치 10,000,000원을 차감한 90,000,000원을 10년에 걸쳐 배분한다. 만원 단위로 계산하면 $\frac{10,000-1,000}{10}=900$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900만원, 즉 9,000,000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 20×1년 1월 1일 취득 즉시 사용하였으므로 20×3년 말까지의 감가상각기간은 **3년**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9,000,000 × 3 = 27,000,000원으로, 취득 후 3년간 비용으로 배분한 금액이다.

기말 장부가액: 원가모형에서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다. 따라서 20×3년 말 장부가액은 100,000,000 − 27,000,000 = 73,00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수익인식 5단계 순서는 '수행의무 식별 → 고객과의 계약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 인식'이다.

④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은 첫 두 단계의 순서를 바꾸었다. 수익인식은 **고객과의 계약을 먼저 식별**한 뒤, 그 계약에서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관한 수행의무를 식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다. 계약에 명시된 약속뿐 아니라 관행, 공표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성명에서 생기는 **암묵적인 약속**도 고려한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러한 약속으로 인해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면 수행의무가 될 수 있다.

② O: 수행의무를 판단할 때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지**가 중요하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활동이라도 그 활동 자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수행의무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단순한 계약 관리 업무는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수행의무가 되지 않는다.

③ X: 올바른 순서는 **고객과의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 인식이다. 먼저 수익인식의 대상이 되는 고객과의 계약을 확인해야 그 계약에 어떤 재화나 용역의 이전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별할 수 있다. 이후 받을 대가를 산정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고, 해당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O: 거래가격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그 금액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얻는 대가가 아니라 제삼자에게 전달할 금액이기 때문이다.

NoteBase

문 6.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이다.

②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는 수익이 아니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이 아니다.

③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④ 수익과 비용의 서로 다른 특성별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요소이다. 재무상태와 관련된 요소는 **자산·부채·자본**이므로, ①의 '재무상태'는 '재무성과'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수익과 비용은 일정 기간 기업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성과 관련 요소**이다.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요소는 자산·부채·자본이다. 따라서 '재무상태와 관련된'을 '재무성과와 관련된'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자본청구권 보유자는 주주처럼 기업의 자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이다. 이들의 출자와 이들에 대한 분배는 **소유주로서의 거래**이므로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수익·비용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주주의 현금출자는 자본을 증가시키지만 수익이 아니며,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은 자본을 감소시키지만 비용이 아니다.

③ O: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핵심은 단순한 자산 증가가 아니라 **출자를 제외한 자본의 증가**이다. 예를 들어 차입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하여 자본은 변하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④ O: 거래와 사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발생 원천이나 성격이 다르다. 이를 모두 하나의 금액으로 합치기보다 **서로 다른 특성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면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매출과 자산처분이익을 구분하면 상품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과 자산 처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NoteBase

문 7.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②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③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④ 오류가 없는 서술이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재무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시 절차상 오류가 없으며, 서술의 모든 면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서술의 모든 면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오류가 없음은 완벽한 정확성을 뜻하지 않으며**, 추정치도 그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고 적절한 추정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적용하면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를 선택하거나 표시할 때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이용자가 기업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하도록 정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거나 축소하면 중립성을 해친다.

② O: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목적적합성은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고, 충실한 표현은 나타내려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서술한다는 뜻이다.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어도 현상을 왜곡한 정보는 유용하지 않으므로 두 특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③ O: 완전한 서술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금액만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상의 성격과 금액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설명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 금액을 제시할 때 그 금액이 역사적 원가인지 공정가치인지 설명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④ X: 오류가 없는 서술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생산하는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적용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가치를 추정한 경우에도 추정치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추정 과정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며, 적절한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적용하면 그 추정치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

NoteBase

문 8. 다음은 (주)한국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주)한국이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기말 재고액은? (단, 재고자산 감모 및 평가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에 의한다)

일자	구분	수량	단가
1월 1일	전기이월	100개	₩ 1,000
4월 4일	매입	500개	₩ 1,100
7월 2일	매출	200개	₩ 1,700
8월 9일	매입	300개	₩ 1,400
9월 7일	매출	450개	₩ 2,100

① ₩ 265,000

② ₩ 275,000

③ ₩ 350,000

④ ₩ 36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취득한 재고부터 판매된 것으로 보므로, 기말에는 **나중에 매입한 재고의 원가**가 남는다. 8월 9일 매입분 250개가 남으므로 기말 재고액은 250개 × 1,400원 = 35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선입선출법은 먼저 취득한 재고의 원가부터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계속기록법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남은 재고의 수량과 원가**를 계산한다. 표의 매출 단가 1,700원과 2,100원은 판매가격이므로 재고 원가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7월 2일 매출: 전기이월 재고는 100개, 개당 1,000원이고, 4월 4일 매입분은 500개, 개당 1,100원이다. 200개를 판매하면 전기이월 100개가 먼저 소진되고 4월 매입분 100개가 추가로 소진된다. 따라서 4월 매입분 400개가 개당 1,100원의 원가로 남는다.

8월 9일 매입: 300개를 개당 1,400원에 매입하므로, 재고는 4월 매입분 400개와 8월 매입분 300개로 구성된다.

9월 7일 매출: 450개를 판매할 때 먼저 남아 있던 **4월 매입분 400개를 모두 소진**하고, 8월 매입분에서 50개를 소진한다. 따라서 기말에는 8월 매입분 300개 − 50개 = 250개만 남는다.

기말 재고액: 감모 및 평가손실이 없으므로 남은 250개에 해당 매입 단가 1,400원을 곱한다. 기말 재고액은 250개 × 1,400원 = 35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 기초총자산 ₩400,000
◯ 기말총자산 ₩200,000
◯ 매출액순이익률 20%
◯ 총자산회전율(평균총자산 기준) 5회

① ₩150,000
② ₩200,000
③ ₩300,000
④ ₩3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평균총자산에 총자산회전율을 곱하면 매출액이 되고, 여기에 **매출액순이익률 20%**를 적용하면 당기순이익이 된다. 매출액 1,500,000원의 20%는 30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평균총자산: 총자산회전율이 **평균총자산 기준**으로 주어졌으므로 기초총자산과 기말총자산의 평균을 사용한다. 평균총자산은 $\frac{400{,}000 + 200{,}000}{2} = 300{,}000$원이다.

2. 매출액: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회전율 5회는 매출액이 평균총자산의 5배라는 뜻이므로, 매출액은 300,000원 × 5 = 1,500,000원이다.

3. 당기순이익: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 중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 매출액순이익률을 곱한 1,500,000원 × 20% = 300,000원이다.

당기순이익은 30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에 1년 치 보험료 ₩360,000을 미리 현금 지급하고 선급보험료로 인식하였을 경우, 20×1년 기말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① (차): 보험료 ₩90,000
(대): 선급보험료 ₩90,000

② (차): 선급보험료 ₩90,000
(대): 보험료 ₩90,000

③ (차): 보험료 ₩270,000
(대): 선급보험료 ₩270,000

④ (차): 선급보험료 ₩360,000
(대): 보험료 ₩36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보험료 90,000원**이 당기 비용이다. 처음에 전액을 선급보험료로 기록했으므로, 이 금액만큼 보험료를 차변에 기록하고 선급보험료를 대변에 기록한다.

계산 과정

최초 인식: 선급보험료는 미리 지급한 보험료 중 아직 보험 보장을 제공받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에 1년 치 보험료 360,000원을 현금 지급하고 전액을 선급보험료로 기록하였다.
기말에는 **이미 보장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기 보험료 계산: 월할 계산하므로 전체 보험기간은 12개월이고, 20×1년 말까지 경과한 기간은 10·11·12월의 3개월이다. 따라서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보험료는 $360{,}000 \times \frac{3}{12} = 90{,}000$원이다.

기말 선급보험료: 남은 9개월분은 다음 기간에 보험 보장을 받을 권리이므로 자산으로 남긴다. 기말 선급보험료 잔액은 360,000 − 90,000 = 270,000원이다. 이 금액은 **수정분개 후 남을 자산 잔액**이며, 이번에 비용으로 전환할 금액은 90,000원이다.

기말 수정분개: 비용인 보험료의 증가를 차변에, 자산인 선급보험료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한다. 현금은 10월 1일에 이미 지급했으므로 기말 수정분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차) 보험료 90,000원 / (대) 선급보험료 90,000원

이는 ①의 분개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이 사채발행 시 인식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 20×1년 초 (주)한국은 사채를 ₩9,700에 발행하였다.
◯ 이 사채의 액면금액은 ₩10,000이며 액면이자율은 연 7%로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는 3년이다.
◯ 사채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입금되었고, 사채발행비 ₩2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① ₩100
② ₩300
③ ₩500
④ ₩7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채발행비는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므로, 할인발행 시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더한다.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이 300원에 사채발행비 200원을 더한 500원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발행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이: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액면금액에서 차감하여 사채의 장부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액면금액 10,000원보다 발행가액 9,700원이 작으므로, 발행가액만 고려한 할인액은 10,000 − 9,700 = 300원이다.

2. 사채발행비 반영: 사채발행비 200원은 발행 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실제 유입된 9,700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발행비 200원을 뺀 9,500원이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이다. 할인발행한 사채에서는 발행비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이 늘어난다.

3. 사채할인발행차금 계산: 액면금액과 최초 장부금액의 차이이므로 10,000 − 9,500 = 500원이다. 발행가액에 따른 할인액과 발행비를 합하여 300 + 200 = 500원으로 계산해도 같다. 이 금액은 ③의 500원과 일치한다. 연 7%의 액면이자율과 3년의 만기는 이후 이자 지급과 상각에 관련된 조건이며, 발행가액이 주어진 이 문제의 최초 할인발행차금 계산에는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2. 자본 거래가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 거래: 주식배당, 발행주식수: 증가, 자본금: 불변

② 자본 거래: 무상감자, 발행주식수: 감소, 자본금: 감소

③ 자본 거래: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증가, 자본금: 증가

④ 자본 거래: 주식분할, 발행주식수: 증가, 자본금: 불변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겨** 새 주식을 배부하므로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모두 증가한다. 자본총계는 그대로이지만, 자본금은 불변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주식배당은 현금 대신 새 주식으로 배당하면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발행주식수가 증가하고 자본금도 증가한다. 자본 내부의 항목만 바뀌므로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선지의 '자본금: 불변'은 '자본금: 증가'로 고쳐야 한다.

② O: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본금을 줄이는 거래이다.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에서는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함께 감소**한다. 현금 등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는 유상감자와 구별된다.

③ O: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자본 내부의 다른 항목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새 주식을 주주에게 배부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모두 증가한다. 주주가 새로 자금을 납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④ O: 주식분할은 한 주를 여러 주로 나누는 것으로, 발행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주당 액면금액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므로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 1주를 액면금액 2,500원인 주식 2주로 나누어도 자본금은 5,000원으로 같다.

NoteBase

문 13. 수정전시산표의 소모품 계정에 ₩150,000이 차변 잔액으로 기입되어 있고 기말의 소모품 실제 재고액은 ₩120,000으로 확인된 경우, 소모품에 대한 결산수정분개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비용은 ₩30,000 발생한다.

② 자산은 ₩120,000 증가한다.

③ 소모품은 ₩150,000으로 계상한다.

④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장부상 소모품 150,000원 중 기말에 남아 있는 금액은 120,000원이므로, 차액 30,000원은 당기에 사용한 금액이다. 이 사용액을 **소모품비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소모품을 자산으로 기록한 경우, 결산 때 사용한 부분을 비용으로 바꾸고 남은 부분만 자산으로 남긴다. 사용액은 150,000 − 120,000 = 30,000원이다. 따라서 결산수정분개는 차변에 소모품비 30,000원, 대변에 소모품 30,000원을 기록한다.

① O: 당기에 사용한 소모품 30,000원을 **소모품비로 인식**하므로 비용이 30,000원 발생한다.

② X: 소모품 계정의 대변에 사용액을 기록하므로 자산은 **30,000원 감소**한다. 120,000원은 자산의 증가액이 아니라 수정 후 남는 소모품 잔액이다.

③ X: 150,000원은 사용분을 차감하기 전의 장부 잔액이다. 결산수정 후에는 사용액 30,000원을 차감하여 소모품을 **실제 기말 재고액인 120,000원**으로 계상한다.

④ X: 소모품비가 30,000원 증가하고 수익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당기순이익은 30,000원 감소**한다. 자산을 비용으로 전환하는 분개이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영업용 차량운반구(원가모형 적용, 내용연수 5년, 연수합계법 감가상각, 잔존가치 ₩100,000)를 ₩1,000,000에 취득하여 즉시 사용하고 있다. (주)한국이 동 차량운반구를 20×2년 10월 1일 현금 ₩700,000을 받고 처분했을 경우,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① ₩60,000 증가

② ₩120,000 증가

③ ₩150,000 감소

④ ₩200,000 감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당기순이익에는 처분이익뿐 아니라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도 반영한다. 20×2년 감가상각비 210,000원에서 처분이익 60,000원이 상쇄되므로 당기순이익은 150,000원 감소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감가상각대상금액과 상각률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1,000,000 − 100,000 = 900,000원이다. 연수합계법은 이 금액에 사용연차별 잔여내용연수를 연수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연수합계는 5 + 4 + 3 + 2 + 1 = 15이고, 첫 사용연도의 상각률은 $\frac{5}{15}$, 두 번째 사용연도는 $\frac{4}{15}$이다. 상각률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 바뀌므로, 이 차량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2. 20×1년 감가상각비
20×1년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사용했다. 첫 사용연도의 상각률을 적용하고 6개월분만 월할 계산한다.
$900,000 \cdot \frac{5}{15} \cdot \frac{6}{12} = 150,000$원이다. 이 금액은 전기 비용이며, 처분 시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에 포함한다.

3. 20×2년 감가상각비
10월 1일 처분 전까지 사용한 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이다. **1~6월은 첫 사용연도, 7~9월은 두 번째 사용연도**에 속하므로 상각률을 나누어 적용한다.
1~6월: $900,000 \cdot \frac{5}{15} \cdot \frac{6}{12} = 150,000$원
7~9월: $900,000 \cdot \frac{4}{15} \cdot \frac{3}{12} = 60,000$원
따라서 당기 감가상각비는 150,000 + 60,000 = 210,000원이다.

4. 처분 시 장부금액과 처분이익
원가모형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전기 150,000원과 당기 210,000원을 합한 360,000원이므로, 장부금액은 1,000,000 − 360,000 = 640,000원이다. 처분대금 700,000원이 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처분이익은 700,000 − 640,000 = 60,000원이다. **처분대금 전액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당기 감가상각비 210,000원은 비용으로 이익을 줄이고, 처분이익 60,000원은 이익을 늘린다. 두 효과를 합하면 60,000 − 210,000 = −150,000원이다. 따라서 20×2년 당기순이익은 150,000원 감소하며,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정답 1번

①

부채의 분류는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의 세 가지**이다. 장기충당부채를 독립된 분류로 추가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부채의 재정상태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채 부담 시점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②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지급해야 할 채무액으로 표시하고, 규칙에 별도 평가규정이 없다면 **만기에 상환할 금액**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NoteBase

④

장기연불매매나 장기금전대차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따른 채무는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사이의 차이가 중요할 때 현재가치 평가**를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채권 · 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NoteBase

문 16.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정답 4번

①

투자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투자증권의 평가)
①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24.7.31>

②

주민편의시설은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NoteBase

③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直前)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④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생산량비례법을 선택할 수 없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2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무형자산의 평가)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 ·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보조부문(S1, S2)과 제조부문(P1, P2)을 가지고 있고, 보조부문 원가들을 제조부문으로 배부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단계배부법으로 배부할 경우, 배부 후 제조부문 P1의 원가합계는? (단, S1을 먼저 배부한다)

구분		보조부문		제조부문	
		S1	S2	P1	P2
부문원가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서비스 제공 비율	S1	–	30 %	40 %	30 %
	S2	40 %	–	30 %	30 %

① ₩309,000

② ₩400,000

③ ₩409,000

④ ₩455,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단계배부법에서는 **이미 배부를 마친 S1에 원가를 다시 배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S2의 원가 230,000원을 P1과 P2에 절반씩 배부하며, P1의 원가합계는 기존 300,000원에 S1 배부액 40,000원과 S2 배부액 115,000원을 더한 45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단계배부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하고, **배부가 끝난 보조부문에는 이후 원가를 다시 배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문제에서는 S1을 먼저 배부한 뒤 S2를 배부한다.

S1 원가 배부: S1의 원가 100,000원을 서비스 제공 비율에 따라 S2에 30%, P1에 40%, P2에 30% 배부한다. S2가 받는 금액은 100,000 × 30% = 30,000원이고, P1이 받는 금액은 100,000 × 40% = 40,000원이다. P2에는 나머지 30,000원이 배부된다.

S2 원가 배부: S2가 배부할 원가는 자체 원가 200,000원에 S1에서 받은 30,000원을 합한 230,000원이다. 이미 배부를 마친 S1에 대한 서비스 제공 비율 40%는 제외하고, **남은 P1과 P2의 비율 30% : 30%를 기준으로 전액 배부**한다. 따라서 P1이 받는 금액은 $230{,}000 \times \frac{30}{30+30} = 115{,}000$원이며, P2에도 같은 금액이 배부된다.

P1 원가합계: P1의 기존 원가에 두 보조부문에서 받은 배부액을 더한다. 300,000 + 40,000 + 115,000 = 455,000원이므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원가와 전환(가공)원가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이다.

② 매몰원가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로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이다.

③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구분은 원가행태에 대한 가정이 유지되는 관련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④ 발생한 원가를 원가대상별로 추적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분류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몰원가는 **과거에 이미 발생하여 현재의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원가**이다. 어느 대안을 선택해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현재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며,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라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초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이고, 전환(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다. 따라서 두 원가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직접노무원가**이다.

② X: 매몰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하여 **현재의 의사결정으로 변경할 수 없는 원가**이다. 어느 대안을 선택해도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현재 의사결정에서는 비관련원가이며, 현재 경영자의 통제 대상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출한 시장조사비는 이후 제품 출시 여부를 결정할 때 매몰원가에 해당한다. 선지의 설명은 경영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가능원가와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관련원가의 성격을 매몰원가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③ O: 관련범위는 조업도와 원가 사이에 가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활동수준의 범위이다. 이 범위 안에서는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총액이 일정하다**고 본다.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하여 설비를 추가하는 등 관련범위를 벗어나면 고정원가 총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원가행태 가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④ O: 원가대상은 원가를 측정하려는 제품·부서·프로젝트 등을 말한다. 특정 원가대상에 **경제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원가**, 직접 추적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면 간접원가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에 사용된 주재료비는 그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지만,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공장의 임차료는 제품별로 배부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전환(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20×1년 3월의 생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의 50 %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정상공손은 품질검사에 합격한 수량의 10 %로 하고 있을 때, 정상공손수량은?

◯ 3월 초 재공품 재고는 2,000개이고 완성도는 60 %이다.
◯ 3월 중 생산에 착수한 물량은 18,000개이고 3월 말까지 15,000개를 완성했다.
◯ 3월 말 재공품 재고는 3,000개이고 완성도는 70 %이다.

① 1,500개
② 1,600개
③ 1,700개
④ 1,800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에서는 **당기에 품질검사에 합격한 수량**을 기준으로 정상공손을 계산한다. 기초재공품은 이미 검사시점을 지났으므로 제외하고 기말재공품은 포함하여, 합격수량 16,000개의 10 %인 1,600개를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 품질검사 합격수량의 범위
정상공손수량은 품질검사에 합격한 수량 × 정상공손률로 계산한다. 선입선출법에서는 전기까지 수행한 작업과 당기 작업을 구분하므로, **당기에 검사시점을 통과하여 합격한 실제 수량**을 구한다. 완성도는 검사시점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완성도를 곱한 완성품환산량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2. 완성품 중 당기 검사 합격수량
기초재공품 2,000개는 완성도가 60 %로 검사시점인 50 %를 이미 지났다. 따라서 전기에 검사에 합격한 물량이므로 당기 합격수량에서 제외한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을 먼저 완성하므로, 당기 완성품 15,000개 중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수량**은 15,000 − 2,000 = 13,000개이다. 이 수량은 당기에 검사를 통과하여 완성되었다.

3. 기말재공품의 검사 통과 여부
기말재공품 3,000개는 완성도가 70 %로 검사시점인 50 %를 지났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당기에 검사에 합격한 물량**이므로 3,000개 전부를 합격수량에 포함한다.

4. 정상공손수량 계산
당기 품질검사 합격수량은 13,000 + 3,000 = 16,000개이다. 정상공손은 이 합격수량의 10 %이므로, 정상공손수량은 16,000 × 10 % = 1,600개이며 ②의 수량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원가자료이다. 20×1년 중 기초원가는 ₩30,000이고, 전환(가공)원가가 직접재료원가의 5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6,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매출원가는?

구분	기초	기말
재공품	₩3,500	₩2,500
제품	₩4,000	₩6,000

① ₩30,000

② ₩32,000

③ ₩35,000

④ ₩37,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초원가에 제조간접원가를 더한 당기총제조원가는 36,000원이다. 여기에 **재공품과 제품의 기초·기말 재고 차이**를 차례로 반영하면 매출원가는 35,000원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원가 구성 확인: 기초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이고, 전환(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다. 직접재료원가를 M, 직접노무원가를 L이라 하면 $M + L = 30,000$이고, 전환원가가 직접재료원가의 50%이므로 $L + 6,000 = 0.5M$이다. 첫 식의 $L = 30,000 - M$을 둘째 식에 대입하면 $36,000 - M = 0.5M$, 즉 $1.5M = 36,000$이다. 따라서 직접재료원가는 24,000원, 직접노무원가는 6,000원이다.

2. 당기총제조원가: 당기에 투입한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를 합한다. 따라서 24,000 + 6,000 + 6,000 = 36,000원이다. 이는 **기초원가 + 제조간접원가**인 30,000 + 6,000으로도 바로 구할 수 있다.

3. 당기제품제조원가: 재공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다. 당기 투입원가에 기초 재공품을 더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말 재공품을 빼면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된다. 표의 재공품 행에서 기초는 3,500원, 기말은 2,500원이므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36,000 + 3,500 − 2,500 = 37,000원이다.

4. 매출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에 기초 제품을 더하면 판매 가능한 제품의 원가가 된다. 여기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기말 제품을 차감**한다. 표의 제품 행에서 기초는 4,000원, 기말은 6,000원이므로 매출원가는 37,000 + 4,000 − 6,000 = 35,000원이며,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